

이야기가 있는 곡성

목차

이야기가 있는 곡성	5
곡성의 인물 (신승겸)	46
곡성의 문화재	53
곡성의 관광지	65
곡성의 답사코스	79

이야기가 있는 곡성



신선바위 곡성을 월봉리

곡성을 월봉리 산에 위치한 이 신선 바위는 동악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집채만하고 평평한 바위인데 옛날에 하늘나라 신선이 바둑 두고 논자리라고 한다.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 가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그 바위 밑에 신우대가 있는데 손때(무당에 가까운 신명이 있는 사람)가 내린 사람이 대줄기를 꺾어 들고 몇일날 비가 오겠습니까? 1일 오겠습니까? 2일 오겠습니까? 3일 오겠습니까? 10일 오겠습니까? 물으면 오지 아니한 날을 대줄기를 두 손이 좌우로 움직이고 비가 온다고 하는 날에는 신명이 나서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이라 모두 믿고 있으며 또 그날 비가 내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한날까지 3일 혹은 7일 또는 10일을 기다릴 수 없어서 신을 노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위에다 똥 오줌을 누고 술을 마시고 부인들이 뛰고 하면 신이 노하여 뇌성번개를 치게 하고 큰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간 사람이 미처 마을까지 도착하기 전에 꼭 비가 온다고 하며 다른 곳이 기우제는 신께 빌어서 비를 오게 하는데 이곳은 신을 노하게 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본디부터 가난하여 기우제 차릴 음식 준비도 못하고 또 잔피가 많아서 신을 노하게 하는 것이 다른 속과 다른 점이라 할까? 그리고 그 바위 밑에 샘이 있는데 그 물에다 밥을 짓고 촛불을 켜고 밤 12 ~ 1시경까지 기도를 드리면 옥동자를 낳는다고 한다.

딸섬 곡성을 동산리

곡성군 곡성을 동산리 백사장에 바위로 이루어진 동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산리가 생긴 후 얼마 안되어 한 처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을 하루하루 유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해

는 가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까지도 곤경에 빠지게 되었더랍니다. 가뭄이 들어 이 딸은 자기는 어찌되든 늙으신 어머니님 보기가 민망스러웠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겠다고 생각되어 강 건너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였던 것이 었답니다. 강을 건너 뒤엔 갑자기 그 무심한 하늘이 웬일인지 억수같이 많은 비를 쏟아 내렸지요. 마을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비는 여러 날을 계속 내려 강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수심에 쌓여야만 했습니다.

며칠이고 쏟아진 비는 강둑을 넘을 정도로 많이 범람한 물은 한 처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어요. 딸이 겨우 밥을 얻어 강가에 땅을 때는 이미 어머니를 만날 수 없을 만큼 물이 차 있었습니니다. 애처롭게 서있는 처녀는 배가 고파서 굶어 돌아가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죽음을 무릎쓰고 이 물을 건너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작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거센 물결은 삼시간에 이 처녀를 아래로 아래로 뒤틀며 떠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나서 눈을 떠볼 때는 어느 돌 위에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그 바위는 동산이 떨어져 나간 바위이고 처녀는 소리를 내어 어머니를 불러 봐도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 딸도 거기서 어머니를 불러 봐도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 딸도 거기서 어머니를 부르다 지쳐 숨이 켜터랍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물이 그 바위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 딸의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하늘이 내려 준 섬이라 부르게 되었더랍니다. 지금은 딸섬이 와전되어 이젠 판섬으로 부르고 있다.

정철봉 바위 곡성을 신기1구 나룻물 마을

사수동(泗水洞) 골짜기의 사수암(泗水庵)절터 바로 뒤에 있는 반석(盤石)은 옛날 사수암의 쌀두지로서 그날의 식구에 알맞는 량의 쌀만 나오곤 하는데 하루는 그 절의 상자가 욕심을 부려 많은 쌀이 나오도록 출구를 찌르고 건드려서 그때부터 쌀은 나오지 않고 하얀 쌀뜨물만 나왔다 하며 지금도 그 반석에 하얀 낙수물 자국이 남아 지워 지지 않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온다.

화산가리 곡성을 신기2구 새터마을

곡성군 신기리 1구 마을을 지나 대강(帶江)쪽으로 2km쯤 가면 명승지 청계동(淸溪洞)이 있다. 그 안에 무슨 절이 있었는데 절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동구 앞강에는 화산가리(여울)가 있는데 앞 마을에 택촌이라는 마을이 이었다. 거기에 A성씨 가진 씨족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절골 중이 동냥하러 가면 금식하는 술과 고기를 억지로 먹여서 욕을 보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마을에 시주 받으러 갔던 화산이란 중이 마을사람들에게 무수한 욕을 보이고 술과 고기를 억지로 먹었다. 그래서 중이 하는 말이 "불가에서 주육(酒肉)을 금하는지 알면서 억지로 나에게 먹여 파계(破戒)하도록 하니 어찌하겠소"하고 먹었던 고기를 전부 토하니 점점의 성어(成魚)가 되어 나오고 중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그 마을은 부처를 무시한 죄로 망하여 폐촌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어 그 중 이름이 화산(華山)이라 그 여울을 화산가리라 부르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집채만하고 평평한 바위인데 옛날에 하늘나라 신선이 바둑 두고 논자리라고 한다.

단군전 곡성읍

곡성읍에는 단군전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해마다 3월 15일(어천절)과 10월 3일(개천절)이면 제향을 지내며 여전히 민족의식을 고취해오고 있다. 이 단군전의 시작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 담양태생인 신태운이 서울 한성사범학교를 마치고, 1909년 곡성보통학교로 첫 부임했다. 독립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점을 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였다. 삼인동에 추가로 단군전을 지을 때 몰래 지었다. 겉으로는 선조의 사당을 짓는다하고, 비밀리에 단군 위패를 모셨다. 개천절과 어천절에 제향을 하며 독립운동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1931년 곡성으로 돌아온 신태운은 삼인동의 단군전을 곡성읍 봉황대자리에 중창했다. 매년 두 날이 오면 밤에 제향을 했고, 지역의 후학들을 가르쳤다.

장선마을(長善) 싹다리 곡성읍

고을원님의 한가한 행차에 논매던 마을 장정들이 시비를 하여 원님이 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원님행렬과 큰 싸움을 해 마을 앞 다리를 싹 다리라 했다는 얘기가 전한다.

사견암(紗絹岩) 곡성읍

바위의 형상이 구례에서 곡성을 향하여 엮드려 절을 하는 형상으로 구례가 언제나 곡성의 속현이거나 곡성사람에게 눌러 사는 것이 이 바위 때문이라고 생각한 구례사람들이 한밤중에 몰래 부수어 강 한복판으로 밀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전해져 오며 일명 사망당(社望堂)이라고도 한다.

도림사 계곡 곡성을 월봉리

도림사 계곡은 해발 735m의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줄기로, 동악계곡, 성출계곡과 더불어 아홉 구비마다 펼쳐진 넓은 바위 위로 맑은 물줄기가 흐른다.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듯이 흐르는 물줄기는 연중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소나무들과 폭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예부터 풍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9개의 넓은 바위에는 선현들이 새긴 문구가 남아 있어 그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섬진강

길이 212.3 km, 유역면적 4,896.5 km².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八公山)에서 발원하여 진안군 백운면(白雲面)과 마령면(馬靈面) 등에 충적지를 만들고, 임실군 운암면(雲岩面)에서 갈담저수지로 흘러든다. 곡성을 북쪽에서 남원시를 지나 흘러드는 요천과 합류한 후 남동으로 흐르다가 압록 근처에서 보성강과 합류한다. 그 이후 지리산 남부의 협곡을 지나 경남·전남 도계(道界)를 이루면서 광양만(光陽灣)으로 흘러들어간다.

조선시대 섬진강 유역은 왜구의 주요 침입로가 되었다. 정유재란 시 왜구의 전라도 공략으로 많은 피해를 본 곳으로 석주관에서 왜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칠의사 묘가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섬진강 유역의 전 지역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나게 된다.

마륵태 오곡면 오지 2구 남동마을

섬진강 수구상(水口上)의 국도 철도가 끼고 도는 모퉁이에 있는

화표석(華表石)으로 바위의 모양이 말의 귀모양으로 이 바위 때문에 곡성에 많은 인재가 나게 되어 하이배(下吏輩)들이 파괴(破壞)해 버렸다는데 이후로는 곡성에 큰 인물이 적어졌다고 전해 온다.

오지리 이야기 오곡면 오지 3구 동동마을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오지리 형세가 행주혈(行舟穴)이어서 목성(木姓)(金, 朴, 車, 崔 등)의 성씨들이 번성(繁盛)할 것이라 하는데 마을에 샘을 파면 배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결과라 하여 샘 파기를 꺼려서 금지해왔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금기는 깨지고 집집마다 샘을 갖게 된 후로는 마을에 큰 부자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합도(蛤島) 오곡면 오지 5구

물고머리(馬輪台) 앞 섬진강 수구에 있는 모래섬으로 이 "조개섬" 속에는 3000년 마다 황금알 한 개씩을 낳는다는 황금닭이 살고 있어 자정(子正)이면 나타나 화를 치며 세 번 울고는 다시 들어간다는데 황금알을 낳을 때마다 국운이 번성(繁盛)해 진다고 전해 온다. 삼원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조개섬의 모래로 콘크리트 제품을 만들어 모래섬은 강 밑으로 내려앉고 말았음.

송정마을 이야기 오곡면 송정리

윗마을 입구에 돌무덤이 2개가 있다. 이것은 옛날 이 마을 어떤 사람이 도깨비와 사귀어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자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메밀죽을 끓여 제사를 드리고자 신표(神表)로 쌓아 올린 돌무덤으로 죽을 때까지 정성을 다 했으나 소원을 풀지 못했다 한다.

어느때인지 의병들이 숨어 들어와 칼과 창을 제조하는 대장간을

용방산 아래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씻물 부스레기와 쇠조각이 나오고 균량미를 감춰두었던 뒤주골, 쌀 구시통이 있다 한다.

현조마을 이야기 오곡면 현조마을

3백 40여년 전에 순흥 안씨가 묘를 쓰는데 넓은 돌이 나와 풍수들끼리 들어내라 말아라 하다 결국 들어내자 검은 새 한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재빨리 돌을 제자리에 덮자 미처 날지 못한 새 한 마리가 그대로 제자리에 남게 돼 검은 현조둥이라 했다고도 구전되어 온다.

도산천(桃散川)

이 골짜기 깊숙이 무릉도원이 있어서 봄이면 유수에 도화꽃이 떠 내려 오고 열매도 흩어져 떠내려 왔다 하여 도산천이라 한다.

덕산사 오곡면 덕산리

고려 예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9성을 축조한 오연총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오연총장군은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1107년 부원수가 되어 윤관과 함께 동북계에 출진, 이때 함주(咸州)·영주(英州)·웅주(雄州)·북주(福州)·길주(吉州)·공험진·송녕(崇寧)·통태(通泰)·진양(眞陽)의 9성을 쌓아 침범하는 여진을 평정하였다.

이 사당은 1583년(선조 16)에 함경도 경성(鏡城)에 건립되었다. 그 뒤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935년경 현재의 위치인 덕산으로 옮겨졌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집 계통의 맞배지붕집이다.

덕산사에 모셔진 문관출신인 오연총(吳延寵)과 무관출신인 윤관(尹瓘)은 1107년 각각 도원수와 부원수로서 여진정벌에 나서 승리한 뒤 자녀들을

혼인시켰을 때 이때 최초로 사돈의 어원이 나왔다는 설이 있다.

"어느 봄날 술이 잘 빚어진 것을 본 윤관은 사돈이자 평생지기인 오연총이 생각나 하인에게 술동이를 지어 오연총 집으로 향했다. 윤관이 개울가에 이르렀으나 봄비 때문에 개울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건너편에 오연총의 모습이 보였다. 역시 술동이를 갖고 윤관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두 사람은 별 수 없이 개울물을 가운데 두고 풀명자 나무 등걸에 앉아 서로 머리를 숙이며 권커니 잣거니 자작했다고 한다. 사돈은 바로 이들이 앉았던 '풀명자 나무'(査)와 '머리를 숙인다'는 뜻의 돈(頓)이 합해져 나왔다는 말이 전해진다."

압록유원지 오곡면 압록리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이곳은 대나무와 깨끗한 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곳으로 압록의 별미인 참계탕, 은어구이, 매운탕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여름철 가족단위 캠핑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강감찬 장군과 모기 오곡면 압록리

고려 현종 때(1005년 경) 강감찬 장군이 모친을 모시고 이곳을 지나다 유숙하게 되었는데 극성스런 모기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모친을 보다 못하여 고탄을 질러 모기 입들을 봉해 버렸다 하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모기 입들을 봉해 버렸다 하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모기가 드물고 간혹 있다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다.

덕양사원 오곡면 덕산리

신승겸 장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선조22년(1589년)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원으로 정유재란 때 모든 건물이 불타고 선조36년(1603)에 신실이 증수되었으며 현종6년(1655)이전의 서원 규모로 모두 중건되었다. 이후 1695년에 덕양이라는 사액을 받아 선현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철폐되었다가 1934년 지방 유림의 공의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강당, 동재인 연서재와 신실인 덕양사, 서재인 신덕재, 전사청 그리고 외삼문, 내삼문 등이 있다. 유적유물로는 덕양서원건사사적비와 강당과 연서재의 내부현판 19개 등이 있다.

신승겸 장군과 태안사 죽곡면 원달리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이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태조 왕건이 견훤군에 포위되어 사경에 있을 때 왕건으로 변장하여 싸우다 전사하자 견훤군은 신승겸을 왕건의 수급(적장의 두상)으로 알고 바치니 왕건이 아님을 안 견훤이 격노하여 수급을 진 밖으로 던지니 어릴적 부터 생사를 같이한 용마가 두상을 물고 고향으로 돌아와 장군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에서 울다가 기진하여 죽으니 태안사 승려들이 신승겸 장군의 두상과 용마를 장사 지내고 그 이후 천여년 동안 유림 후손과 함께 매년 제향을 드린다.

신승겸 장군과 용마 목사동면 구룡리

장절공 신승겸장군은 어려서 대항강(보성강) 용소에서 목욕을 하다가 용마(龍馬)를 얻어 비래봉(飛來峰)과 신유봉(申游峰) 화장산(華藏山) 대항강변(大荒江邊)을 이 용마를 타고 무예를 닦았다고 한다. 하루는 용마의 주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비래봉에서 화살을 쏘고 화장산정(華藏山頂)에 와 화살을 찾다가 장군은 화살이 어디

엔가 와 있으리라 믿고 늦게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애마(愛馬)를 칼로 쳐 죽이려는 순간 그때 화살이 날아와 나무에 꽂히는지라 하마터면 애마를 죽일 뻔 하였다. 그 후로는 용마를 애지중지 사랑하였다. 그 후 왕건을 도와 팔공산 싸움에서 왕건의 위태로움을 대신하여 전사하였다. 이 때 이 용마가 즉시 주인의 머리를 물고 장거리를 단숨에 달려 고향인 태안사 뒷산에 나타나 3일을 슬피 울고 굶어 죽었다 한다. 이를 태안사 승려들이 이는 필시 신장군의 머리요 그 애마라는 것이리라 믿고 그곳(장군단)에 말의 무덤과 신장군의 무덤을 만들어 매년 3월 16일 산제와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호랑이가 나타나 승려들을 잡아갔다고 한다.

철갑옷 바위 석곡면 방송리

석곡면 화장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서 장절공 신승겸 장군이 평상시 훈련하면서 입던 철갑옷을 감춰두었다가 항시 내어 입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철갑옷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한때 어느 총각이 나무하러 갔다가 호기심에 바위 위에 있는 철갑옷을 입어 보려고 하자 바위에 딱 붙어서 3일 만에 겨우 떨어졌다고 하고, 일제 때 왜구들이 <전설이란 허무한 것이다>라고 망치로 바위를 부수니 별안간 뇌성병력이 일고 풍우가 치니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 한다.

장군천 석곡면 방송리

석곡면 화장산 중턱에 있는 우물로서 신승겸장군이 산상의 치마대에서 훈련하다가 또는 이산 저산으로 말을 달리며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마시던 샘이다. 그런데 여기 금으로 만든 복지개(물그릇)가 항상 물위에 떠 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금복지개로 물을 마시다가 금복지개가 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3일만에 떨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금 복지개는 없어지고, 우물만 남아 있으며 장군천이라 부르고 있다.

용소(龍沼), 용탄(龍灘), 용암(龍岩), 용마(龍馬) 석곡면 방송리 화장산 기슭 대황산 가운데 여울과 소와 바위가 있으니 이 소에서 신승 겸장군이 목욕하였다는 곳이라 하여 용소라고 이름하고 그 여울 역시 용담이라고 하며 여울 옆에 있는 큰 바위를 용암이라고 한다. 여기 바위가 물속에 뻗어서 큰 바위를 이루고 그 바위위에 용마 발자국(마족적)이 있고 말구시(말 밥통)가 있고 또 신승겸장군이 목욕할 때 등을 문지르던 바위가 반들 반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용마 목사동면 평리 3리 궁두 마을

옛적에 마을 앞 보성강에서 갑자기 용마가 나타나 매일 새벽이면 우뚝 서있는 바위로 올라와 몸을 문지르면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신대장군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세라 용마를 붙잡아 안장을 건 후 보성강 건너편 화장산을 오르내리면서 무술을 훈련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돌실나이 석곡면 죽산리

돌실나이의 돌실은 석곡에서 유래되었으며 돌실나이는 석곡에서 나오는 삼베를 뜻한다. 신라 유리왕 때부터 「적마」라는 어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삼베와 무명베를 우리의 옷감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돌실 마포는 옛부터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우수하여 공예품으로 가치가 높다.

석조부부미륵 이야기 석곡면 죽산리 죽산마을

어느 부유한 집에 도승이 탁발을 왔는데 그 집 자부가 시부모 몰래 시주를 하니 도승이 이르기를 이 집에 재난이 닥쳐오니 피난을 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이윽고 뇌성벽력이 치자 부부가 피난하면서 서로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부인은 석곡미륵으로 변화였고 남편은 죽산 미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온다.

태안사 죽곡면 원달리 문화재 자료 제 23호

이곳은 불교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동리산파의 본산지다. 신라 경덕왕 원년(742년) 이름모를 신승 세 사람이 세웠다고 전해진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던 사찰로 혜철선사, 도선국사, 광자대사가 득도한 정량수도의 도량이다. 태안사로 들어가는 1.8km의 계곡은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 가을에는 짙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다.

관음사 오산면 선세리

백제 분서왕3년(300년) 성덕보살이 창건한 남한 제일의 백제 고찰이다. 별교에서 금동 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와 봉안한 내륙의 관음성지이기도 하다.

관음사 창건 연기 설화 오산면 선세리

〈옥과현성덕산관음사적〉에는 〈심청전〉의 원형 설화라 할 수 있는 원랑 부녀의 이야기 및 성덕(聖德)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절의 창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창건설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므로, 〈옥과현성덕산관음사사적〉에 실린 내용을 간추

려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충청도 대홍 이라는 곳에 장님인 원량(元良)이 살았다. 그에게는 홍장(洪莊)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용모가 뛰어나고 효성도 지극했다. 하루는 원량이 동네를 지나는데 성공(性空) 스님이 원량을 보자 큰절을 올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오늘 동네에서 장님을 만날텐데, 그가 장차 대화주(大化主)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량은 놀라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설명했으나 스님은 한사코 그에게 화주가 되어 줄 것을 간청했다.

스님과 헤어진 원량 부녀는 근심이 태산 같았는데, 마침 중국의 진나라 사신이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는 진나라의 혜제(惠帝)가 '새 황후 될 분이 동국(東國)에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가보라' 하여 배를 타고 왔는데,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이끌려 이 집으로 인도 되었노라는 말을 원량 부녀에게 하였다. 부녀는 사신이 가지고 온 예물(禮物)을 받아 그것으로 성공 스님에게 시주하여 절을 짓도록 했다. 그리고 홍장은 중국으로 건너가 진나라 혜제의 비가 되었다.

황후가 된 홍장은 착한 마음씨로 인해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계속해서 정업(淨業)을 닦았다. 그러나 고국을 못 잊어한 홍장은 53불과 500성중 그리고 16나한상을 만들어 배에 실어서 백제로 보냈다. 그 배는 감로사(甘露寺) 앞 나루에 닿았으며, 감로사에 봉안되었다.

그 뒤에도 홍장은 관음보살상을 주조하여 돌배[石船]에 실어 백제로 보냈는데, 낙안(樂安) 땅에 도달한 배는 수상히 여겨 잡으려는 수졸(守卒)을 피해 그곳을 떠났다.

한편 이 때 옥과현에 사는 성덕(聖德)이라는 처녀가 우연히 해변을 거

널고 있다가 멀리서부터 돌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바로 홍장이 53불 등을 실어 보낸 그 배였다. 배가 저절로 성덕에게 다가와 성덕이 안을 살펴보니 관음금상이 빛나고 있었다. 성덕은 놀라 배례를 하고는 관음상을 업어 인연의 땅에 모시기 위해 여러 곳을 순력했다. 전부 열 한번을 옮겨다녔는데, 마침내 가장 적당한 곳을 찾아 관음상을 봉안하고 절을 지으니, 이곳이 바로 지금의 관음사이다.

조통과 아라공주 옥과면

만취정 성황당에는 고려시대 신종(神宗, 재위 1197 ~ 1204)대의 학자였던 조통과 고려왕족인 아라공주의 목조상이 모셔져 있다. 장대한 외모였다는 조통, 그와 고려 왕족인 아라공주(아랑 공주라고도 한다)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오고 있다. 조통을 그토록 사랑한 아라공주는 개성을 떠나 조통의 고향마을까지 찾아 왔으나, 그가 가까이 하지 않아 결국 가슴에 한을 묻고 죽었다는 전설이다. 이뤄지지 않은 이 사랑이야기는 후세 사람들, 특히 무당들에 의해 애절한 사랑을 짝 지워 주고 신통력을 얻기 위해 조통과 공주의 상을 나무로 조각하여 한 자리에 모시고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전라남도 민속자료 2호로 지정된 목조신상은 호남 무속자료 중 그 시기가 오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통은 입상으로 84cm, 공주는 좌상으로 68cm이다. 조통은 차분하고도 후덕한 느낌을 주고, 공주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갈구하는 듯한 모습이다. 옥과면 옥과리 만취정 뒤 성황당에 목상이 모셔져 있다.

유팽로 장군 정열각 옥과면 합강리

유월파 정열각은 임신왜란 때 의병장으로 왜적과 싸우다 죽은 유

평로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인조 3년(1625)에 세운 건물이다. 유월파라는 이름은 유팽로 장군의 호인 월파에서 비롯되었다. 유팽로 장군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과거에 급제하고도 부모 봉양을 위해 벼슬을 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호남지역으로 침입하고자 금산에 집결한 왜적을 공격하다가 고경명, 안영 장군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유월파 정열각이 있는 옥과면 북쪽 끝에는 장군의 말 무덤이 있다. 유팽로 장군이 금산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그의 말이 장군의 머리를 물고 먼 길을 달려 그의 생가까지 갔고 부인이 장군의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말은 마굿간에 들어가 9일이나 여물을 먹지 않은 채로 계속 울다 죽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들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인조 3년에 유팽로 장군 정열각을 건립하였다.

유팽로 장군 이야기 옥과면

유팽로장군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옥과면에 전해져온다

"김동현 할아버지의 소개로 권혁문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아, 월파 장군 같은 참 유명한 양반이고, 그 전으로부터 아주 한국의 유명한 양반 아니여? 아 그런데 그렇게 투철하게 한국의 그 열의를 가지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한 양반이 왠지 드물져. (조사자 : 그 분이 언제 때 분이세요?) 그때 고려 때던가 근디 우린 잊어 불고 잘 기억을 안항게 기억을 안항게 잊어불고 그러디. (조사자 : 월파 장군이 뭘로 그렇게 유명하신건가요?) 응? (조사자 : 뭘로 그렇게 유명하세요?) 아, 전쟁터에 나가셔서 그 저 머시냐 조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싸움을 하시고 그러는디 전

쟁터에 가서서도 몸을 안애끼고 목숨을 안애끼고, 저 그렇게 거시기 참 굶어가면서까지도 응 전쟁만 꼭 그렇게 투철하게 하시다가 불행히도 에 그냥 목숨을 잃게 되었으야.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는 그냥 뭐 요런게 뭐 폭격을 하고 그런게 아니라 에 전부 인자 그 칼, 창 요런걸로 전쟁을 허, 허, 허고 그랬는다. 기냥 칼에 맞아서 목이 떨어진게 그 말이 그 머리를 물고 와가지고요기요 정방뜰에 와서(조사자 : 정바위 뜰?) 정발뜰. (조사자 : 아, 정발뜰.) 예, 거기다가 마시 머리를 놓고는 멀이 기신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조사자 : 말이 그러니까 장군 목을 물고?) 에 그래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말무덤에다가 그래가꼬 인자 말이 기진해서 죽어붙고 머리를 인자 인자 국민들이 안장을 하고 말도 거기다가 말 무덤이라고 크게 인자 무덤을 지어서 그렇게 말려놨다가 거시기 하는데 중간에 거기 뭐다 개발이라고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말 무덤을 다시 저리 움겨 가지고 지금 해놨어요. (조사자 : 아, 움겼어요?) 네, 움겨 가지고 해놓고.

설화 증언 2.

일곱살 때 그분이 시를 자기 아버지들이 노는 데서 시를 쓰라고 하니까, 나무는 오래되도 변치 않고 물은, (이야기 도중 잠시 생각하셨다.) 내가 산물 문맥을 잊었는데, '그런 물과 산에 비유를 하면서 어버이의 뜻은 변하지 않다.'라는 효행시를 지었다고 7살 때, 그런데 그분이 25살인가 그 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같은 거 합격을 하셨거든.

그리고 그분의 주검이 장렬했는데 29살대 금산전투에서 그 고경명 장군 휘화에 있었는데, 그 고경명 장군이 적지에 들어갈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손을 쳐가지고 부하를 떨어뜨

리고 단신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고경명 장군을 구할려 하다가 자신도 장렬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보다 유명한 것은 그 유월파 장군이 죽으니까 말이 그 시신의 머리를 물고 합강까지 왔다. 금산 전투에서.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머리가 유월파 장군 머리를 말이 물고 오니까 그 치마로 받았대요. 치마로 받아 갔구 계속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다가 며칠 만에 같이 죽었어. 그 부인까지. 그래서 훗날 오리마라는 말 무덤이 있어요. 그 근처에. 오리마, 말 이름이 아마 오리마였던 모양이야. 말두덤이 있어 굉장히 크게 해놨어.

그리고 합강 뒷산에 정명락이라고 유월파장군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옛날 것이 지금 있고, 옥과 만취정에도 노인정에도 유월파 사당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훗날 유월파 장군에 대해서 충신, 충마 또 열부가 태어났다. 이서 후세 우리들에게 애국을 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귀감으로 꼭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천광호(天光湖)와 개구리 옥과면

천광호는 현재 옥과고등학교 정문앞 100m 위에 석비가 서있다. 그 뒤에 만취정이 있으며 지금은 옥과 노인당이 자리잡고 있다. 천광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조때 방옥정이란 옥과 현감이 기생 로주선과 뱃놀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호수의 생김새가 하늘을 닮아 천광호라 이름했다 한다. 지금은 그 넓은 땅이 모두 개인에게 분할되고 물이 고인 60여 평에 연꽃풀이 몇그루 남아 있다. 옛날 저 유명한 강감찬장군이 이곳을 지나다 하루를 쉬게 되었는데 밤에 천광호에서 개구리가 극성스럽게 울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부적을 써서 호수에 넣으니

개구리 울음이 그쳤다면 지금도 개구리가 울지 않는다고 한다. 일설에는 존재 위백규가 부적을 넣어 개구리를 울지 못하게 했다고도 한다. 위백규는 장흥 출신으로 이름은 백규며 새원에 합격 지리, 복서 등에 능해 도통한 도인으로 1796년 옥과 현감에 임명된 인물이므로 오히려 개구리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위백규가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도 이 지역에 구전되어 온다.

고의병장(高義兵將)과 말무덤 고달면 대사리

고달면 대사리 1구 북방주곡에 임진왜란 때 고영호의 병장이 이충무공 휘하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순사하였으며 그 당시 애마(愛馬)가 몸으로 유탄을 막고 공의 생명을 구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공과 함께 전사하였다. 병부(兵部)에서는 전지(戰地)에서 충성을 다한 말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공과 같이 시체를 거두어 공의 묘아래 안장(安葬)하여 의마(義馬)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개구리바위와 뱀바위 고달면 목동 1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위는 뱀 바위와 100m 거리에 있으며, 이 두개의 바위는 뱀이 개구리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형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당시 마을 사람들이 와암(蛙岩)을 마을 쪽으로 돌려놓으니 온 마을에 질병이 발생하고 사고가 다발하므로 원상 복귀시켰다고 전함. 마을에서는 매년 이곳에서(정월초 1일)제를 지내오다 1973년 이후 지내지 않고 제거하여 현재는 뱀바위만 남아있음.

박언배장군과 충렬문 입면 삼오리 1구

궁동마을, 마을 초입을 들어서자 다 잇고 있는 화살시위처럼 생긴 지세를 볼 수 있어 마을 이름을 짐작케 했다. 마을 옆에는 문헌공

난계 선생 행적비가 안쪽에는 오봉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충렬문이 있었다.

충렬문은 순조 5년(1805년) 뒤늦게 박언배의 충절을 조정이 인정하고 동몽교관 겸 선무원종심동공신을 내리고 정려를 세우고 충렬문 글자를 임금이 친히 내렸다.

그의 본관은 밀양, 호는 일심헌, 세종 때 악률에 정통해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더불어 삼대악성이라 일컫는 난계 박언의 오대손이다.

"불충불효하면 어찌 사람됨이라 하겠는가. 내 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 임금(인조)이 몽진(피난)을 하게 됐는데 감히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당시 후금이라 칭하던 만주 여진족이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한(인조5년, 1627년)이 일어나자 박언배는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고 전투를 벌였다. 전라도부사이던 사계 김장생이 의병을 모집하자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김장생의 휘하로 들어갔다. 군사를 이끌고 황주로 달려가 전투를 벌였는데 수차례 승리를 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 인조 10년(1632년) 나주 싸움에서 명나라 장수 모승록의 막하에 들어가 유흥치를 토벌하다 끝내 순절하기에 이르렀다. 구원병이 없어 고립돼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당시 집권세력 서인은 친명배금정책을 확실하게 표방했었다. 이때 그의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그가 전사하자 초혼장을 했다. 장례를 하는 날, 부인 완산 이씨가 두살난 아이를 시숙에게 부탁하고 자결했다. 자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지아비가 이미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어찌 지아비를 위해 죽지 않을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장부가 마땅히 해야 한다. 살았을 때에는 한 집에서 살고, 죽어서는 같은 무

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내가 바라는 일이다."

함허정 입면 세월리

조선시대인 1543년(중종 38)에 심광형이 후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지촌정사(중요민속자료 155)를 짓고,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를 위하여 지었다는 전형적인 누정 건축이다. 군지촌정사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고종 때의 읍지에는 세연정이라고 되어 있다. 주변 경치가 좋아 옥과현감 등이 이곳에서 향음례를 베풀었다. 정자 밑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수목이 울창하여 지방 유림들이 시를 짓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섬진강변의 구릉을 평평하게 닦아 오른쪽으로 섬진강과 평야를 끼고, 전방의 전망은 천마봉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외별대의 낮은 콘크리트 기단 위에 윗면만 다듬은 덩벙주초를 놓고 외동주는 원주를, 내동주는 방주를 세웠다. 기둥머리 부분에는 창방을 걸치고 소루를 끼워 장설반침 굴도리를 그 위에 얹었다. 기둥 윗부분에는 주도와 보아지를 놓아 보빨목을 아래서 받치고 있다.

대들보는 평주 위에 얹었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우물천장을 만들었다. 좌측단부인 우물천장 부분은 도리에서 직접 대들보를 층량에 연결하여 공간을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방은 3면이 트인 마루 1칸, 방 2칸 반, 그리고 반칸 크기의 쪽마루형 마루를 한단 높인 함실아궁이의 순으로 되어 있다. 창호는 예전에는 빗살문이었는데, 고쳐서 지금은 띠살문이다. 벽은 심벽구조로 회를 발랐다. 금호타이어가 들어서기 전에는 날씨가 맑았을 때는 무등산 경치가 보였다.

노고성지 고달면 고달리

고달은 고달면의 남동부에 있는 마을로 천마산과 깃대봉의 구릉으로 형성된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고성지는 곡성군, 구례군, 남원군의 경계지점인 천마산에 있는데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성은 고려 때 한 노파가 치마에 돌을 운반하여 축조하였다고 하여 '한미성' 혹은 '할미성'이라고 부른다. 노고성지는 이 지역에서 재난이나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봉화로 이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청화스님과 성륜사 옥과면

성륜사는 전남 옥과면 소재지에 있는 절로 약 20여년 전 청화큰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청화 스님은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24세(1947년)가 되던 해 송만암 스님의 상좌인 금타(金陀)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 운문암에서 출가하였다고 한다. 은사 스님인 금타 스님에게서 '청화(淸華)'라는 법명을 받게 되며, 불문에 들어 47년을 산중 선방에서 수행에만 전념하신 산승(山僧)이며 당대 최고의 선승(禪僧)이라고들 한다.

큰스님은 전국 각지를 돌며 수행하다 신라 말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고찰 태안사를 복원하고 서울의 광륜사와 이곳 성륜사를 창건하였다 한다. 청화 큰스님은 장좌불와(눅지 않는 생활)와 1종식(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으로 평생을 수행하며 청빈한 구도자의 길을 숭선수범하신 분으로 입적하시기 전까지 성륜사에 주석해 계셨다고 한다.

멀리서 볼 때는 역동하듯 힘차게 흐르던 설령산 산세가 경내로 들어서니 아가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양팔처럼 부드럽게 성륜사를 안고 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듯 하지만 그보다는 아가를 안

고 있는 어머니의 양팔처럼 부드럽게 안으로 굽은 산세가 성률타를 외호하고 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장고한 역사가 없기에 역사성에서는 미천해 보이지만 당대를 대표할 최고의 선승이 창건하고 주석하였던 곳인 만큼 성률타는 선풍이 분명한 곳이다.

도동묘 오곡면 오지리

도동묘는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와 회헌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1678년 오곡면 승법리에 묘각을 건립하여 안향의 영정 진상을 이안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이 묘각을 도동사라 칭하였다.

이후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으나 승법리에서 오지리로 이안하였으며 1868년(고종5년) 훼손되었다가 1902년 도내의 유림들과 협의하여 주자를 부벽으로 하고 안향을 동벽으로 하여 복설하였다. 사당엔 주자와 안향의 추상화(120*180cm)와 용의 형상을 나타낸 향토술잔 등이 있으며 춘추로 3월 15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제사를 유림들이 모시고 있다.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오곡면 오지리

고려시대 문인이자 유학자인 안향(1243 1306)의 시문집『회헌실기』를 간행하기 위한 목판으로, 영조 42년(1766) 죽계서원에서 간행한 초간본 목판 55매와 고종 22년(1845)에 간행한 중간본 목판 32매 등 총 87매이다.

안향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를 일러 '동방의 주자'라고 하였다.

시호는 '문성'이며, 여러 서원에서 그를 모시고 제사지내고 있다.

그의 영정이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하고 있다.

이 목판은 판각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 인쇄사 측면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수성당 오곡면 오지리

1875년(고종 12)에 축조되어 초기에는 서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노인정(老人亭)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의 본래 모습은 다소 잃은 듯하다.

정면 5칸, 측면 1칸에 전후좌우 퇴(退)를 두었으며 팔작지붕이다. 맨 왼쪽부터 방 2칸, 대청 2칸, 다시 방 1칸을 배치하였다. 2단의 낮은 기단 위에 덩병주춧돌을 놓고 두리기둥[圓柱]을 세웠으며, 그 위에 주두(柱頭)를 놓았다. 창방과 장여는 굴도리로 된 외목도리(外目道理)와 결구되어 있고, 창방과 장여 사이를 조그마한 소로로 짜 맞추었다.

방에는 온돌,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또 천장은 방에는 반자가 있고 대청은 연등천장으로 노출되어 있다. 방에는 2분합 띠살 문을 달았고, 대청은 4분합 들어열개로 되어 있다. 대청에 있는 대들보는 굴곡이 심한 커다란 원목을 2겹으로 결구하여 특이하며, 전퇴의 우미량은 모습이 뚜렷하다. 건물 앞에는 연못이 있고 소나무, 은행나무, 복숭아, 대나무, 뱃나무 등의 수목이 많아 운치를 더한다.

동악산과 원효대사 곡성읍

동악산은 호남의 섬진강 자락과 보성강이 만나는 전남 곡성에 자리하고 있고, 내륙 깊숙한 곳을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에서 찾아가기란 그렇게 만만찮은 곳이다. 어렵게 계획하여 출발하는 만큼 설

레는 마음은 여느 때와는 달리 느껴진다. 일요일 무박산행은 언제나 그랬듯이 텅 빈 자리가 대부분이고, 한산하기조차해 흥가분한 기분으로 다녀 오리라 마음먹고 산행에 임해본다. 동악산은 원효대사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효대사가 성출봉 아래에 길상암을 짓고 원효골에서 도를 베풀고 있던 어느 날, 꿈에 성출봉과 16 아라한이 그를 굽어보고 있었다고 한다. 꿈에서 깨어나 즉시 성출봉에 올라가 보았더니 1척 남짓한 아라한 석상들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원효대사가 곧 성출봉을 오르내리면서 아라한 석상들을 길상암에 모셔 놓았더니 육시만 되면 천상에서 음악이 들려 온 산에 퍼졌다 한다. 그래서 음악을 뜻하는 '악(樂)'이라는 글자가 '동악산(東樂山)'의 이름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설산이야기 옥과면

해발 522.6m의 설산은 전남과 전북의 경계이자 곡성 8경의 하나인 설산낙조 설산은 멀리서 보면 눈이 쌓인 것처럼 정상부 바위벼랑이 하얗게 빛나 그런 이름을 얻었다. 설산의 특이한 산세로 인해 명당에 얽힌 설화가 유난히 많다. 기러기형국이니 사자형국이니 하는 명당이 많다고 하는데 큰 가뭄이 들면 무덤 때문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이 호미를 들고 나서서 봉분들을 파헤쳐 버리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설산 자락에 있는 오래 된 사찰로 신라 고승인 설두화상이 수도 했다고 전해지는 수도암이 있으나, 그 당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1928년 임공덕 보살이 창건한 암자가 현재 그 터에 들어서 있다. 설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의외로 금강 이북의 윗 지방 쪽에서도 잘 알려진 명산이며 정감록 비결에 설산동십리허(雪山東十里許)에 피난지처라 전해왔다. 이러한 까닭에 예부터 국란이나 각종 사화 등으로 인한 연좌제의 화를 면하기 위해 은근

히 비전되어 온 피난 거처를 찾아 들어와 정착한 예가 옥과 근교 토착 성씨인 심, 박, 허, 강, 김씨 등의 문중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불교설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산중턱에는 신라시대에 창건 했다는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산과 암자를 연계하여 부처님이 수도를 했다는 팔도성지중 하나인 성도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위산의 광석질이 유리 원료인 규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눈처럼 하얗게 보인데서 유래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모 사기그릇 제조회사에서 여러 차례 규석광산개발을 위해 답사해 갔다고 한다.

설산자락에는 해주오씨 세장산을 비롯한 요소요소에 형성된 수많은 묘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설산과 연관된 풍수설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옛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설산과 연관된 대표적인 풍수혈을 살펴보면 사자가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는 사자양천 혈과 해가 연못으로 떨어진다는 일낙함지의 혈을 들 수 있다.

대 명당 이라는 두 혈은 아직도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설산 정상 분지에 자리 잡은 일명[아뫏등]이 복여부로 미루어 사자양천 혈은 아니라고 풀이한다.

옥룡자유산록에서 도전국사는 "설산의 대혈은 정상 부위가 아닌 산 아랫부분에 있다"고 적고 있다.

즉, 늪은 쥐가 밭으로 내려와 먹이를 찾는 형국이라는 노서하전은 옛부터 이 혈을 찾고자 수많은 풍수지사들이 설산을 찾아 연구해

왔다고 한다.

이 노서하전 혈에는 밤을 쌓아놓는 적률안의 형상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마을 형태가 밤알맹이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밤정굴(울사리)마을이 바로 그 명당지가 아닌가 보고 있다.

수도암 옥과면 설옥리

수도암은 옥과면 소재지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km의 거리에 있는 설산(해발 522m)의 남쪽 허리에 자리하며 1928년 9월경에 박민수·임공덕 보살이 창건한 암자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신라의 설두화상이 수도한 곳이라 하나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설산에 나암사가, 여지도서(1700년대 간행)나 옥과현읍 지도에서는 설산 바로 밑에 금선암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의 절터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이러한 설산에 옛 절이 존재한다는 기록과 수령 150년 묵은 잣나무와 매화나무로 보아 옛 절터에 절은 지은 것 만은 분명하다.

경내에 있는 건물은 圓通殿·七星閣·山神閣 요사채(2)로 모두 5동이다. 경내 입구에는 수령 200년쯤 된 잣나무(柏子樹)와 매화나무(靑梅樹)가 있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7호인 이들은 사찰과 관련된 수목으로 보이며 적어도 200년 전에 사찰이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옛 절터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입구 요사채 윗벽에는 서기 1929년에 판각된 雪山修道庵創建大施主功德記(佛紀二九五六年 己巳九月 日)와 谷城郡玉果面雪山修道庵記(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六年己巳月二十日)가 걸려 있다.

철철바위 석곡면 온수마을

예전에 온천수가 나오는 옥류동이라는 곳에 절터가 남아있으며

쇠가 나왔다는 철철바위가 있다.

업독 겸면 송강리

동내 앞 회관 길 건너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동네사람들은 '업독'이라고 하고 업독이 놓여 있는 곳을 '업독거리'라고 부른다. 이 업독은 동내를 지켜주는 돌이라 믿고 있다, 흔히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복(財福)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복을 지켜주는 신이 '업신'이다. 따라서 업독은 동네의 재복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셈이다. 이 업독이 지금은 회관처마 밑에 놓여 있다. 업독이 옮겨지게 된 연유는 외지의 사람들이 가져 갈려고 하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가에 있는 것을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업독에는 10개의 성혈(性穴)이 조식되어있다.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살 고달면 두계리

마천목장군은 조선 태종을 도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고 세종 11년에 장흥부원군에 진봉되었으며 병조판서 재임 시 북방 6진설치를 주장하였으며 세종13년 74세로 졸하여 충정의 시호를 받았다.

마천목 장군이 소년시절 순자강 하류 두계천에서 강뚝을 거닐며 부모님께 공양 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살을 막기 위해 궁리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둥글게 생긴 작은 돌이 푸르고 기이하게 생겨 주어왔는데 그날 밤 수천의 도깨비들이 나타나 절을 하면서 강가에서 주워온 돌이 도깨비들의 대장이므로 돌려주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마천목 장군은 두계천에 어살을 막으면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 즉시 도깨비들이 물러가더니 잠깐사이에 다 막았다고 한다. 도깨비들이 막은 어살을 확인하고 마천목장군께서 그 돌

을 돌려주니 도깨비들이 장차 부원군대감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사라졌다는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마천목 장군과 호랑이 고달면 두계리

마천목 장군이 어린시절 효성이 너무 지극함에 호랑이가 감동하여 스스로 짐승을 잡아다가 사립문 안에 던져 보냈다고 한다. 마천목은 이를 맛있게 요리하여 부모님을 공양하였는데 하루는 꿈에 노인이 나타나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마천목이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잠을 깨어 그곳에 달려가 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마천목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보은의 뜻으로 함정 주인에게 호랑이를 사서 살려 보내 주었다는 마천목 장군의 효행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온다.

마천목 장군 묘역 석곡면 방송리

마천목 장군묘역은 산뱀이 미구리를 쫓는 격의 명당으로 묘역의 청룡능선을 명나라 이여송장군이 임진왜란때 지원을 나왔다가, 이곳에서 후일 중국을 침략할 인재가 태어날 곳이라고 해서 그 혈맥을 절단했다고 한다. 당시 절단 하였던 이 능선(길이 3미터, 폭 4미터, 넓이 6미터)을 장흥마씨 중앙종회에서 복원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장승거리 '석장승' 오산면 가곡리

가곡마을은 마을 주위 산세(山勢)가 개자(介字)와 같다고 해서 '개동(介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 뒤에는 개사(介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며, 오층석탑(보물 1322호)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신속주와 같은 대학자를 배출한 곳이라고 하며, 고령신씨 선산이 있는 곳이

다. 이 마을은 소꼬리 형국으로서 소머리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동네 방향 또한 남향으로서 동네입구가 북쪽을 향하고 있다.

석장승은 동네 앞 100미터 지점도로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장승거리라고 부른다. 장승을 세운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막기 위해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승의 남녀 구분은 동네에서 왼쪽이 할아버지 장승이라고 하며, 오른쪽이 할머니 장승이라고 한다.

두꺼비바우 입면 금산리 외금

동네에 두꺼비바우가 있는데 마을의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마을에서는 그 모양을 말의 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두꺼비 형상이라고 한다. 이 두꺼비바우의 머리를 항상 농토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 두꺼비바우 머리를 다른 마을을 향하게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여자들이 상사병이 생겨나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

'안사백(安師伯)효자문' 석곡면 염곡리

염촌마을 앞에 효자문이 서 있다. 효성이 지극한 그는 부친이 위중한 병에 걸리자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내 봉양하여 치병을 하였으며, 노모가 병환에 들어 한겨울에 죽순을 드시고 싶어 하자 죽순을 구하러 방중까지 헤메고 다녔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죽순을 구하게 해 주고 길 안내해 주었다고 한다. 또 한번은 몹시 기름이 들어 부모봉양을 걱정하여 하늘에 기도하자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려 주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마을에 정자나무와 감나무를 심고, 거기에 짚신을 매달고 우물을 파서 지나가는 길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고 한다.

태안사의 경찰충혼탑(忠魂塔)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경내

1950. 6. 25당시 한정일 곡성경찰서장 이하 전원은 곡성사수를 결심하고 경찰국 작전지시에 의하여 전라북도와의 도계인 순자강 상류 인도교(금곡교)를 중심으로 괴뢰군의 남하작전을 저 조지하며 아군 후퇴작전을 지환 하고 있던 중 50년 7월 24일 태안사에 전투 본부를 설치하고 유격전을 전개하였음.

태안사에 입산직후 당시부산에 있는 치안국과 무전을 교신 코저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암호블득 으로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던 중 강진 경찰부대로 부터 암호를 얻어 치안국과 교신하게 됨으로서 작전상황을 보고하였음. 7. 29 곡성을 진공한다는 유력한 정보를 입수하여 적을 사전에 분수하기위하여 보성강과 순자강의 합류지점인 압록에 진출 포진 하였다.

남원, 구례를 석권한 적은 정규군606기압부대로서 3개 중대의 병력으로서 싸이도-가 척후부대를 선두로 아방군지 전면에 진공하여 왔다. 한정일 서장의 명령 하 전 화력을 적에 집중하여 선제권을 장악하고 맹공격을 가하자 적은 병력과장비의 우세를 믿고 집요하게 방어진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아방의 호적이 되어 격전 3시간 만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은 싸이도 -가 5대와 25명의 시체를 남기고 구례방면으로 패주 하였다.

제1차 진공에서 삼배한 적은 동일오후 2시경 1개 대대의 후속 증원 부대를 얻어 전차 1대를 선두로 재차침공을 기도하였으나 이 역시 우리 경찰부대의 용맹 과감한 반격전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패주 함으로 아 부대는 태안사로 복귀하였다

그 후 적은 아방 방어진 돌파의 난관을 자인하고 1개 연대의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8월6일 미명을 기하여 태안사를 중심으로 침공하여옴에 4면에서 유도작전으로 향전하여 적의 시체는 류혈이

계곡을 물들이게 하였으나 중과부족으로 전세는 점점 불리하여 방 어전이 위기에 봉착 격돌 실로 5시간 후에 불득기 진지이동을 결심 하고 "금후의 무전통신 여하는 차는 전투승패가 결정하니 대한민국 동지들의 건투를 기원함" 이라는 비장한 마지막 전문을 치안국에 타전하고 결전을 계속 중 적에게 전지를 점령당하자 분산 후퇴하여 백운산으로 이동 병력을 규합하였으나 대원은 각처에서 피포내지 학살당하는 등 적치 하에서 48주의 영령을 모시게 된 쓰라린 역사를 창조하였다.

그후 태안사 참전동지회 발족으로 각 기관과 유지의 적극협조로 위령 충혼탑을 건립하고 위령제 답8두락을 조성하여 또한 군 보조와 가계 성 의로 매년 8월 6일 동회 집행부에 의하여 위령제를 드리고 있음.

거북바위 겸면 운교마을

겸면 운교리 마을회관 앞 냇가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거북 한 쌍이 살다가 수컷이 물 사람에게 잡혀 돌아오지 않자 암컷이 죽어서 바위가 되었다한다.

문등바위 삼기면 울곡마을

밤나무가 무성한 울곡 마을에 있는 바위에 고인 물을 바르고 문등 병환자가 고쳤다는 전설이 있다.

통명산(通明山)

통명산은 곡성군의 중심지요 산높이 764미터로 제일 높은 산으로 곡성군의 삼기면, 석곡면, 죽곡면, 오곡면과 면계를 이루고 있으며 도선국사의 옥룡자답산가(玉龍子踏山歌)에 의하면 장군대좌(將軍大坐)의 명당이 있다고 적고 있어 호남지방의 명산의 하나이다. 통

명산은 웅장하면서도 산자락이 부드러운 자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곡면 명산(明山)저수지의 발원지이다. 통명산은 산토끼, 노루, 멧돼지, 꿩 등이 많이 살고 있으며, 특히 고사리, 취, 도라지, 지초등 자생약초의 보고이며, 감, 밤등 과일이 흔하다. 통명산은 최근에 1일 등산 최적의 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등산로는 곡성읍에서 명산저수지로 오르는 길과 곡성인테체인지에서 가까운 삼기면 금반리, 청계리등에서 오르는길, 오곡면 봉조리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동악산(動樂山)

동악산(動樂山.735미터)은 곡성읍과 입면(立面)경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곡성군과 입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큰산으로 형제봉(일명 聖出山), 최악산(嶽山), 정철봉, 마산봉등으로 삼기면(三岐面)까지 산맥이 형성되어 있으며, 겸면(兼面)까지 경계하고 있다. 형제봉(兄弟峯)에 올라서면 섬진강과 넓다란 대평들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며 날씨 좋을 때는 멀리 광주 무등산이 보인다. 동악산(動樂山)이라 이름 한 것은 원효대사가 이산에 도림사와 길상암을 창건할 때 이산이 상서롭게 움직이며 노래가 울렸기 때문에 이라고 한다. 또 곡성군에서 장원 급제가 나면 즉시 동악산에서 노래 소리가 났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률에 맞춰 춤을 추면서 오늘날의 산세를 갖췄다는 전설로 유명한 산이다. 동악산 등산로는 크게 도림(道林)계곡, 원효(元曉)계곡, 청계(靑溪)계곡, 삼인(三人)계곡등이 있다.

봉두산(鳳頭山)

봉두산(鳳頭山 752미터)의 옛 이름은 동리산(桐理山)이다. 봉두산은 곡성군 죽곡면과 순천시 월등면(月燈)과 황전면(黃田)과 면계

를 이루고 있다. 봉두산 서남쪽 능선 자락에 자리하는 태안사(泰安寺)가 있는데 이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며 예전에는 대안사(大安寺)라 불렀다 한다. 동리산은 통일신라이후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한 문파를 일컫는 이름이며 봉두산(鳳頭山)은 봉황의 머리 같은 형국의 산 모양에서 따온 것이며, 동리산(桐理山)은 오동나무의 안쪽이라는 뜻으로 봉황과 오동의 상관관계를 짐작케 한다. 태안사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32호로 지정된 절로 광자대사(윤다)에 의해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파의 중심사찰로 대가람의 터전을 마련하고, 도선국사(道詵國師827-898)가 혜철를 만나 불법과 풍수지리설을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의 시조로 동리산(봉두산의 옛이름)선종을 이은 대선승으로 전해오고 있다. 봉두산 태안사를 찾으려면 남해고속도로 석곡 인터체인지에서 보성강을 따라 죽곡면 소재지를 지나 동계다리를 건너 태안사 입구까지는 약 10여km가 되며 압록에서 찾으면 약8km쯤 가면 된다.

원효동(元曉洞)계곡 이야기 곡성읍

곡성읍에서 5km지점 서계리에서부터 시작하며 입구에는 맥반석 가마찜질방이 있고 1km올라가면 원효동과 집터굴(저승굴)골짜기로 나누어 진다. 이 골짜기는 반계 류형원, 다산 정약용선생이 다녀갔다는 기록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구한말 오강 김정호(金正昊)선생이 수도하고 제자들과 공부하였다고 한다. 원효동이라 이름 붙이게 된 것은 원효대사가 북호폭포(伏虎瀑布)밑에 절을 지었으나 빈대가 많아 폐사하고 도림사를 지었다는 전설과 함께 절터만 남아있다. 이북호폭포는 화강암 암벽으로 약 80여미터나 되는 2단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호랑이가 엮드린 형국이라 하여 금강산

구룡폭포와 함께 이름이 복호폭포라 붙여 졌으며 장마때는 물줄기가 크고 장엄하여 가는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폭포옆의 깎아 세운 듯한 능선 위에 고인돌(일명:권돌바위)이 있다. 이권돌바위는 이름 그대로 능선위에 큰 바위를 기묘하게 괴어 세운 듯한 바위로 큰 상자 같이 생기고 뚜껑이 있는 듯하여 예로부터 이돌속에 외침시 적에 대한 방어용 갑옷과 철갑투구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임진왜란때 피란하며 살았다는 집터와 암자터가 있으며 밭을 일구었던 넓은 평지가 있다.

삼인동(三人洞) 이야기 곡성읍

곡성읍에서 0.5km부터 시작하며 곡성읍민의 등산 제 1코스이다. 지명의 유래는 동악산 골짜기로 사람인 자 셋을 곁친 것 같은 형국(形局)이라 하여 삼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이 년중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아들바위(삼인동 큰 성적굴 동쪽에 위치)에 돌을 던져 없히게 되면 아들을 낳는다고 전해온다. 삼인동 골짜기에 용이 기어 올라간 지국을 가진 소(沼)가 있는데 심한 가뭄이 들때 마을 주민들이 용소(龍沼)를 비우면 비가 내려 물로 패어 다시 소(沼)를 이룬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상수도 수원지로 변하였다.

청계동(靑溪洞)과 양대박 장군 곡성읍

청계동은 곡성읍, 입면, 남원시 주생면 세 고을의 산이 남북으로 서로 만나 하늘이 지은 별천지와 같이 경관이 뛰어나 마치 삼청의 진경을 옮겨 놓은 것 같아, 옛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내왕을 했던 호남의 명승지이다. 또한 의병장 양대박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전에 닥쳐올 국란을 예견하고 미리 계책을 세우고

자 청계정사 (내·외사와 보호정, 동정, 서정, 남정, 북정)를 짓고 의병을 모집 양성하였던 창의기병의 거점이다. 장군은 임진왜란 일어나자 청계동 노적봉에 마람을 둘러놓고 백회 수백포를 섬진강에 풀어 곡성지역에 대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같은 위장전술을 펴 왜병의 진군을 막았다. 이후 의병장 고경명, 유팽로, 아들 정우 등과 함께 임실 운암 전투에서 왜군 수괴 대남비의 왜병 만여명과 싸워 천 여명의 왜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양대박 장군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의병으로는 삼남의 첫 전투였다. 그후 조정은 장군의 충의정신을 기려 대제학과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고 이언고을에 정려문을 세웠는 바 그 이름을 부자충의지문이라 하였다.

의마총 옥과면 합강리 내동

옥과면 북쪽 끝 남원군 대강면과 경계 지점에 있는 사방 폭 6미터, 높이 3미터 가량의 말 무덤이 있다. 유팽로장군이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충청도 금산 싸움에 전사하자 그의 말이 장군의 머리를 물고 3백리 밤길을 달려 생가인 합강리에 나타났다. 부인이 이를 알고 장사지내고 말은 마굿간에 들어가 9일간이나 여물을 마다하고 계속 울다 죽자 이를 물어주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 말 무덤을 의마총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갑산굴 곡성을 서계리

곡성읍에서 삼기면으로 넘어가는 괴티재 우측 최악산(697미터) 중턱계곡에 서쪽을 향하고 있는 큰 굴이 있는데 여자의 생식기를 닮았다. 4-5미터 쯤 안쪽에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공터가 있고 옛부터 큰지네가 살았다고 전한다. 이곳에 정갑산이란 산적이 살면서 부하

들과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한 도사가 정갑산의 선조묘가 산 고양(穴)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여 주민들이 파묘를 한 뒤 정갑산이 죽고 말았다고 하여 '정갑산굴' 이라고 전한다.

대황강(보성강)

이 강은 보성군 웅치산으로부터 기원하여 보성에서 곡천의 구비를 돌아 모후산의 기슭을 스쳐 송광사를 오른쪽으로 보고 낙수를 지나 주암, 광천을 거쳐 석곡 반구정을 왼쪽으로 올려보고 목사동 평리를 돌아 죽곡 화장산 밑의 신승겸장군의 용소, 용탄, 용암과 비래산 신유봉의 기슭에서 북소의 전설을 들으며 동계로 와서 태안사모습을 그리면서 압록까지 와 섬진강과 합류하는 강이다. 물결이 굽이치는 이강은 은어, 쏘가리, 자라, 참계의 명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북소 죽곡면

이 곳은 대황강(보성강)의 유명한 낚시터로 강태공의 한가로운 풍경도 일품이지만 여기는 옛날 산 넘어 와룡사라는 절이 빈대 때문에 절을 태워버리고 남은 북을 가지고 태안사로 가는 도중 지금의 북소를 건너다가 북을 강에 빠트려 이후부터 이 곳을 북소 라고 부른다고 한다.

영류재 죽곡면 봉정리

죽곡면 봉정리에 위치한 영류재는 1917년 함안조씨들에 의해 화합과 우애를 도모코자 세워진 건물로 매년 정기 대총회장과 자손들의 단합장소로 이용하여 왔으며 개화기에는 개량서당이란 속칭으로 청소년들의 윤리 도덕과 신학문 교육의 장으로 이용된 바도 있다.

건물은 넓은 대지에 각종 수목을 심은 정원과 정원내 연못과 괴석, 시석 등이 널리 널리 있고 영류재는 2단의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제각으로 좌로 1칸의 방, 2칸의 대청마루, 1칸의 방 순으로 되어 있다.

영류재의 목재는 치목이나 결구법이 우수하고 전형적인 강당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리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여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중바위 석곡면 기동마을

기동마을에 있는 바위로 승려가 바위에 앉아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려 주우려다가 잘못하여 바위틈에 끼여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벌통바위 석곡면 봉암마을

마을 뒷산에 벌통바위가 있어 봉암이라고 부르는데 바위에 불빛이 비치면 마을이 해롭다는 벌바위 주변에 나무를 심어 불빛을 가리 워 왔다고 한다.

가정리 고인돌 곁면 가정리

순천에서 광주쪽으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곁면 가정리 곡성 휴게소 부근에 다수의 고인돌이 보인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써 지하에 돌로 널을 만들어 죽은 사람을 안치하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아 무덤임을 나타내면서 지하의 돌널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가정리 고인돌은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서 순천시 서면까지 2차선으로 있던 호남고속도로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1993년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대학교박물관 외 4개 박물관이 참여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복원된 것이다. 여기서 조사된 유구는 대부분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고인돌 60기, 옹관묘 1기, 주거지 4기 등이고 유물로는 붉은간토기, 돌검, 돌화살촉, 돌낫, 갈돌, 삼각형 돌칼등이 출토되었다.

현대의 문화 혜택의 편리함 속에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파괴되지 않고 발굴조사 되어 그 성격이 밝혀지고 이전 복원되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된 것과 우리문화 유산의 파괴를 막은 귀감이 되었으며 여기 보존된 고인돌 이외에도 우리 곡성지역 여러 곳에 수많은 고인돌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다.

낙죽장도 목사동면 공복리

낙죽장도는 대나무를 이용한 칼을 뜻하는데 2~3년 생인 대나무 뿌리부분을 사용하여 인두로 글씨나 무늬를 새겨 넣은 것으로 국가지정 무형재인 한병문씨에 의해 재현되고 있으며 그 예술성이 돋보이는 우수 공예품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봉두산 죽곡면 원달리

753m의 산으로 지형도에는 봉두산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태안사의 일주문 현황에는 <동리산 태안사>라 되어 있다. 산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도 두 이름에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봉황이 서식하는 나무가 오동나무이고 태안사가 자리잡은 곳을 둘러싼 주변 산세가 오동나무 줄기속처럼 아늑해서 동리산이라 불려졌다. 이 산에 최고봉을 봉황의 머리 즉 봉두산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봉두산 주변에는 곡성 특유의 내륙산지를 이루고 있다.

곡성향교 곡성읍 교촌리

곡성읍 읍내리에서 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성출봉 기슭에 위치하며 조선 선조 3년(1570년)에 세워진 뒤 인조 27년(1647년)에 다시 수리된 비교적 큰 향교이다. 담장은 막돌 담장으로 경내에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동재, 서재 전사청, 교직사, 문간채, 내삼문 등이 전학 휴묘의 배치기법으로 놓여져 있으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성전의를 올리는데 문묘에는 5성위와 유현 22위를 모시고 있다.

옥과향교 옥과면

옥과면 옥과리에 위치한 옥과향교는 처음 창건된 연대는 1392년(태조1년)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창건당시 오산면 연화리 부근 황산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그 후 울정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1756년(영조 32년)에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경사지에 위치하여 학부당인 명륜당을 전면에 두고 대성전을 후면 높은 곳에 두어 일반적인 전학 후묘의 배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경내에는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등이 있으며 외삼문 전방 약 10m 지점에는 향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긴 통나무를 걸쳐 놓았던 구멍이 뚫린 석물이 입구 양쪽에 있다. 문묘내에는 5성과 중국 4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춘추로 석전제를 지내고 있으며 현재 학생들의 공부방이 만들어져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영귀서원 겸면 현정리

겸면 현정리에 소재한 영귀서원은 명종 19년(1564년)에 옥과 유림들이 옥과 현감으로 재임했던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를 추

모코자 건립한 사원으로 처음 옥과면 죽림리에 영귀정사로 세워진 뒤 숙종 20년(1694)에 영귀서원으로 발전되었다.

김인후, 이홍발, 신이강을 제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허계와 허소 형제가 추배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고종 5년(1868)에 훼손된 이후 1960년 이르러 현 위치에 복설되었다. 현재는 김인후를 포함 유팽로, 신이강, 허소, 허계, 위백규 등 모두 6위의 위패를 봉안 제향하고 있다.

하서 김인후는 인종-명종대의 학자이다. 16세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중의 한 사람으로 호남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다. 하서의 경세사상은 정암 조광조의 지치주의 경세론과 맥을 같이하고, 고봉 기대승의 경세사상으로 이어지며 다시 율곡의 경세사상으로 발전한다.

등구마을(登九) 이야기 석곡면 구봉2리

지형이 거북이가 구산을 보고 기어 올라가는 형국이라 하여 등구정이라 했다. 빈대가 많아절이 폐사가 되자 주지스님이 재를넘어가다 상자승을 잃고 바랑골에서 바랑까지 잃어버려 발을 뺏어놓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壯節公 申宗謙將軍

고려개국공신



고려개국공신(高麗開國功臣) 장절공(壯節公) 천성이 용맹스러웠으며 활쏘는 재주와 무예가 뛰어났다.

대사정신(代死精神)을 추모하면서...,

장절공 신승겸(? ~ 고려태조 10년, 서기927년)

신승겸 장군은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이며 호는 장절공(壯節公)으로 써 고려시대 개국공신이다.

처음 이름은 능산(能山)으로 야사기록에 의하면 서기 877년 이곳(신라) 옥내군(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 현, 용산제)에서 출생하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은 장대하고 천성이 용맹스러웠으며 활쏘는 재주와 무예가 뛰어나 장사다운 자질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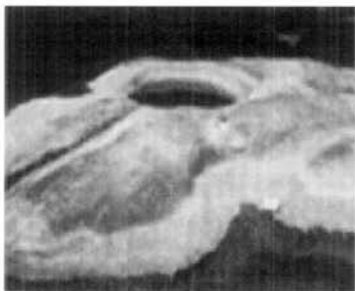
태봉(泰封)의 기장(騎將)으로 있을 때인 서기 918년 6월 홍유(洪儒), 배현경(裒玄慶), 복지겸(卜智謙) 등과 의논하여 궁예(弓裔)를 몰아내고 태조 왕건을 받들어 고려를 개국한 개국공신이다.

태조 10년(서기927년) 가을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태조는 신라를 돕기 위해 대구 팔공산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수가 많은 후백제군에게 포위를 당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때 태조와 비슷한 용모를 갖춘 신승겸장군이 완의 복장을 하고 대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또한 1120년(예종15)에 신승겸과 김락장군을 추모하는 도이장가(悼二將歌)라는 향가를 지어 찬양케 하였다.

현재 곡성의 덕양서원과 용산재, 대구의 표충사, 춘천의 도포서원(道浦書院), 평산의 태백산성사(太白山城祠), 동양서원 등에 배향되고 있다.

용소(龍沼), 용탄(龍灘), 용암(龍岩), 용마(龍馬)



용소(龍沼)

대항강(寶成江) 가운데 여울과 소(沼)와 바위가 있으며 이 소에서 신승겸 장군이 목욕하였다는 곳이라 하여 용소(龍沼)라고 이름하고 그 여울 역시 용탄(龍灘)이라 하며 여울곁에 있는 큰바위를 요암이라고 하였다.



용마(龍馬)

여기 바위가 물속에 뻗어 큰바위를 이루고 그 바위밑에 큰 굴이 있어 용마(龍馬)가 출입한 것을 신장군이 잡아 탔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말구시(말밥통)

그리고 여기 바위에 龍馬발자국이 있고 말구시(말밥통)이 있으며 신장군이 목욕시 등을 문질렀다는 반들 반들한 바위가 있다.

장절공 영적비(태안사 입구)

장절공이 죽은 후 얼마되지 않아 공의 말이 머리를 물고 이곳 태안사로 왔던바 태안사 스님들이 이야기 하길 “필히 공의 머리라” 판단하고 매년 제를 올리고 있으며 영적비는 1937년 후손 신현모에 의해 그 뜻을 기록하고 설립하였다.

신유봉(申遊峰)

죽곡면에 있는 해발 665M의 산으로 신승겸장군이 무예를 익혔던 봉우리이다. 타고 다니던 말의 능력을 시험키위해 반대편 봉우리를 향해 활을 쏜 다음 말을 달려 봉우리에 도착해 보니 화살이 없어 화살이 이미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여 타고 다니던 말의 목을 베려할 때 화살이 떨어져서 말을 구하였다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다.

화장산(華藏山) 철갑옷 바위

화장산은 죽곡면에 있는 해발 525M의 산으로 신승겸장군이 이곳에서 무예를 익혔으며 당시 입었던 갑옷을 숨겨두었다는 바위(鐵鎧岩)가 있는데 어느날 나무꾼 총각이 이웃을 발견하여 호기심에 입어 보려 하자 바위에 몸이 달라 붙어 3일만에 떨어져서 나하며, 일제시대에 왜경들이 「전설이란 허무한 것이다」하여 망치로 바위를 부수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몰아치니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화장산 장군천(華藏山 將軍泉)

화장산 중턱에 있는 우물로서 신승겸장군이 산에서 무예를 닦다가 목이 마르면 마시던 샘이다. 금으로 만든 복지개(물그릇)가 항상 물위에 떠 있었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금복지개로 물을 마시다가 금복지개가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3일만에 떨어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용산재(龍山齋)목사동면 구룡리 / 지방기념물 제 56호

신승겸장군의 태생지로 용산재에는 구룡문과 용산재비, 용산단이 있다.

2003년 완공된 용산재 성역화사업은 경내 확장과 홍살문, 동·서재, 교교직사, 내·외삼문을 건립하여 학습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신승겸장군과 관련된 유적지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용산단(龍山壇)



용산제 비각



덕양사(德陽司)오곡면 덕산리 / 지방기념물 제 56호

선조 22년(1589)에 본군 현감 신옥(申沃)이 도 관찰사, 도 내외 후손과 협의하여 창건하였으며 강학과 지방의 풍속을 장려하여, 선현의 충절을 일깨우는 등 교화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여러차례 중수하였고 숙종(肅宗) 21년(1695년) 윤세기(尹世紀)가 조정에 상소하여 사액서원으로 되었다. 고종 8년(1871)때 서원 훼철명에 의해 훼철되었으나 1937년 전라도 후

손에 의해 강당, 연서재, 덕양사, 신덕재, 전사청, 외삼문, 내삼문을 중건하였으며 1981년 목사동면에 소재한 용산재와 함께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 56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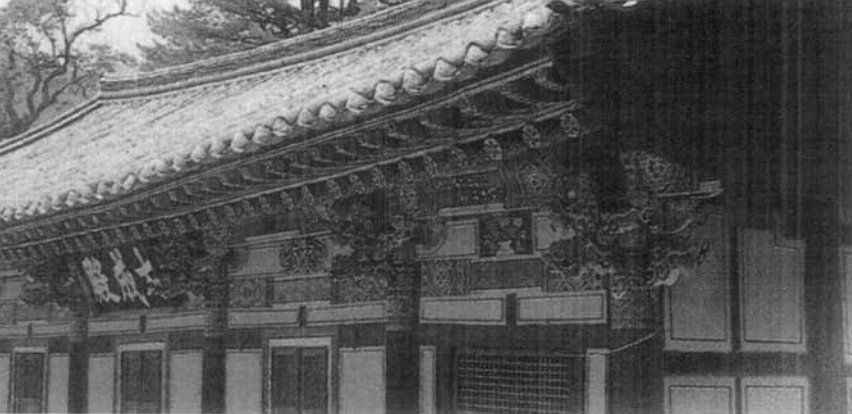


덕양서원 건사사적비(建祠事蹟碑)
1821년(순조 21)에 세워진 사적비로 서원의 내역을 알 수 있다.

기적비각(紀蹟碑閣)

곡성의 문화재





곡성향교

곡성읍 교촌리 / 문화재자료 제27호

조선 선조 3년(1570년)에 세워진 큰 향교이며 경내에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동재, 서재, 전사청, 교직사, 문간채, 내삼문, 등이 있으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성전의를 올리고 있으며, 문묘에는 5성위와 유현 22위를 모시고 있다.



단군전

곡성읍 읍내리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 왕검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매년 10월 3일 개천절과 3월 15일 어천절에 단군 성조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경내에는 3.1운동 기념비와 설립자 백당 기념관이 있다.



덕양서원

오곡면 덕산리 / 도지방기념물 제56호

고려 개국 공신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선조 22년(1589년)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유적유물로는 덕양서원건사 사적비와 강당과 연서재의 내부현판 19개가 보관되어 있다.



덕산사

오곡면 덕산리 / 문화재자료 제1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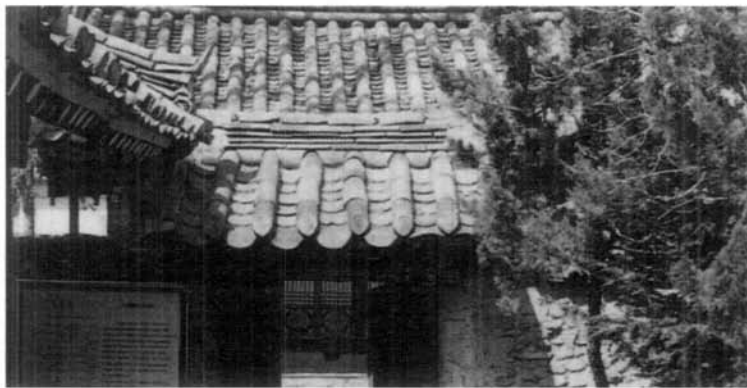
고려말 여진족을 토벌하고 9성을 축조한 윤관장군과 부원사였던 오연충 장군을 모시기 위하여 세워진 사당이다.



수성당

오곡면 오지리 / 문화재 자료 제129호

조선시대 고종 12년(1875년)에 축조되어 초기에는 사당건물로 사용되었다. 2단의 낮은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그 위에는 주도가 있다.



도동묘

오곡면 오지리 / 문화재 자료 제29호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와 문절공(文節公)회헌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주자와 안향의 추상화가 있으며 춘추로 두 차례 제사를 지낸다.



충정공 마천목장군 사당 석곡면 방송리

조선 태종을 도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고 세종 11년에 장흥부원군에 진봉되었으며 세종 13년 74년로 줄하여 충정의 시호를 받았다.

석조여래입상

석곡면 석곡리 / 문화재자료 제28호

재질은 화강암으로 조각기법은 고려 중엽의 거대한 지방 석불로 추정되며 지방 석불양식을 이해하는데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용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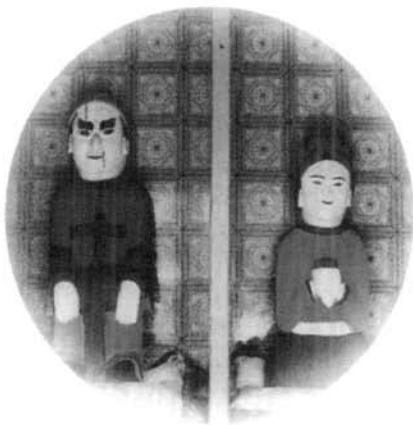
목사동면 구룡리 / 지방기념물 제56호

고려 태조 왕건이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포위 당하자 왕건을 구하고 전사한 고려 개국 공신 신승점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목조신상

옥과면 옥과리 / 민속자료 제2호

고려시대 명종때 한림학사 벼슬을 지낸 조통장군이 고향인 옥과로 낙향하자 사모하던 공주가 옥과로 찾아갔으나 장군이 가까이 하지 않자 한을 품고 죽자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공주의 상을 조각하여 한자리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는 애뜻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영류재

죽곡면 봉정리 / 문화재자료 제167호

전형적인 제실건축의 강당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1917년에 함안조씨들에 의해 세워진 건물로 개화기에 청소년들의 윤리도덕과 신학문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였다.



월파 유팽로장군 정렬각

옥곡면 합강리 / 문화재자료 제25호

임진왜란 때 고경명장군을 도와 금산 싸움에서 전사한 유월파 장군의 처 원주김씨가 따라서 자결하였으며 이 열행을 기리기 위해 인조 3년에 건립되었다.



옥과향교

옥과면 옥과리 / 지방유형문화재 제109호

옥과 향교는 조선 태조 1년(1392년)에 창건되어 문묘 내에서 5성과 중국 4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춘추로 석전제를 지내고 있으며 현재는 학생들의 공부방이 만들어져 배운의 장이 되고 있다.



충열문

입면 삼오리 / 유형문화재 제51호

정묘호란때 의병장으로 안주전투에 참가한 박연의 5대손인 박언배와 남편의 전사소식을 듣고 자결한 부인 완주 이씨의 충과 열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함허정

입면 제월리 / 도유형문화재 제160호

이 건물은 조선 중기에 여러 고을의 훈도를 지낸 바 있는 당대의 문사 심광형이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중종 38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 아래로 섬진강이 흐르고 주위에 수목이 울창하며 멀리 무등산이 백리광야에 드러나 보이는 명승지이다.



군지촌 정사

입면 제월리 /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이 건물은 옥과현감이 부임하면 반드시 봄철 향음례를 베풀었던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주택양식이다.



영귀서원

검면 현정리

명종 19년(1564년) 옥과 유림들이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를 추모코자 건립한 서원으로서 현재는 주벽 김인후를 포함 유팽로, 신이강, 허소, 허계, 위백규 등 모두 6인의 위패를 봉안 제향하고 있다.

가곡리 오층석탑

오산면 가곡리 / 보물 제1322호

고려 중기 무렵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며 우동의 두드러짐과 감실의 모양을 만든 점, 경쾌한 느낌을 주는 옥개석을 짜맞춘 방법과 짜임새 있는 점등이 기단 형식과 함께 이 탑의 특징이다.



가정리 고인돌

겸면 가정리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 60기, 옹관묘 1기, 주거지 4기 등과 붉은 간토기, 돌검, 돌화살촉, 돌낫, 갈돌, 삼각형돌칼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곡성의 관광지





도림사 (道林寺)

곡성읍 월봉리 | 문화재 자료 제 22호

신라 무열왕 7년(660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며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이 숲같이 많이 모여들었다 하여 도림사라 전해진다. 현재는 응진당, 칠성각, 요사채 등이 남아있다. 절입구 「도림사」현판은 허백련화백의 작품이며, 동악산 아홉구비마다 펼쳐진 암반석의 깊고 깊은 도림사 계곡은 일품이다. 특히 덩악산, 형제봉은 등산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림사괘불탱

괘불 보물 제341호

삼존도 괘불은 입상인데 반해 도림사 괘불은 주존이 좌상이며 협시는 입상인 특이한 예로 후불벽화(탱화)의 한 잔영으로 보이며, 17세기 후반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태안사대웅전

태안사 (太安寺)

죽곡면 원달리 | 문화재 자료 제32호

이곳은 불교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동리산파의 본산지다. 신라 경덕왕 원년(742년) 이름모를 신승 세 사람이 세웠다고 전해진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초까지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던 사찰로 혜철선사, 도선국사가 득도한 정량수도의 도량이다. 태안사로 들어가는 1.8km의 계곡은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 가을에는 짙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다.

대웅전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근래 새로 중수하였으며 4벌대의 장대석을 쌓아 기단을 삼고 원형초석위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창방과 기둥 위에서 결구한 다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적인선사조륜청정탑

광자대사탑

광자대사비

태안사바라

능파각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내 / 도 유형문화재 제82호

5량 구조 맞배지붕 형태의 누각으로 영조 13년인 1737년에 세워져 그 뒤에 여러 차례 고쳐 이어졌을 걸로 짐작된다. 보기 드문 옛 나무다리로 계곡의 맑고 시원한 물은 한여름에는 한기를 느낄 정도이다.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내 / 보물 제273호

부도와 탑비를 함께 모신 태안사 창건주인 해철스님의 부도탑이다. 부도는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팔각을 고수하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경문왕 원년(861년)으로 추정된다.

광자대새탑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내 / 보물 제274호

고승 광자대사의 부도당으로 높이는 약 3m에 달하고 지대석 상륜부의 보개까지 8각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부위에 탑신을 차례로 놓은 전형적인 8각원당형이다.

광자대사비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내 / 보물 제275호

해동금석원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 5.2척, 너비 3척으로 나타나 있는데 언제인가 비신이 깨져 오른쪽 상부와 하부가 멸실된 비편이 귀부와 이수 사이에 놓여져 있으나 판독이 가능하다

태안사바라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내 / 보물 제956호

바라는 승가에서 범패같은 행사에 사용되는 불구로서 취타와 무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효령대군이 세종과 완비, 왕세자 등으 수복을 빌기 위하여 발원하여 제작되었으며 지름이 92cm로 국내에서는 가장 크다.



능파각(凌波閣)

5량 구조 맞배지붕 형태의 누각으로 영조 13년인 1737년에 세워져 그 뒤에 여러 차례 고쳐 이어졌을 걸로 짐작된다. 보기 드문 옛 나무다리로 계곡의 맑고 시원한 물은 한여름에는 한기를 느낄 정도이다.

태안사 동종(太安寺銅鐘)

대운전 안에 놓인 이 동종은 1457년(세조3년)에 주조한 것을 종이 깨져 금 400근을 넣어 1581년(선조 14년)에 만들었다는 문귀가 새겨져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초기 동종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태안사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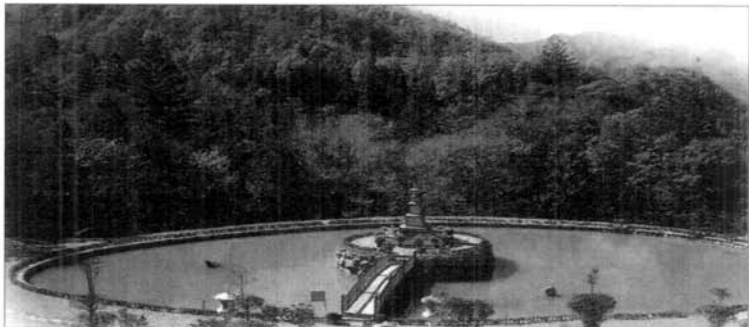


일주문(一柱門)

내3출목, 외4출목으로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양설로 살미침차들과 화려한 단청과 기둥상부의 용머리 장식이 눈길을 끈다. 전면에는 「동리산 태안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삼층석탑(三層石塔)

높이 4.17m 인 석탑은 옛 부재에다 일부 탑재를 만들어 복원된 것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균형감을 살려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며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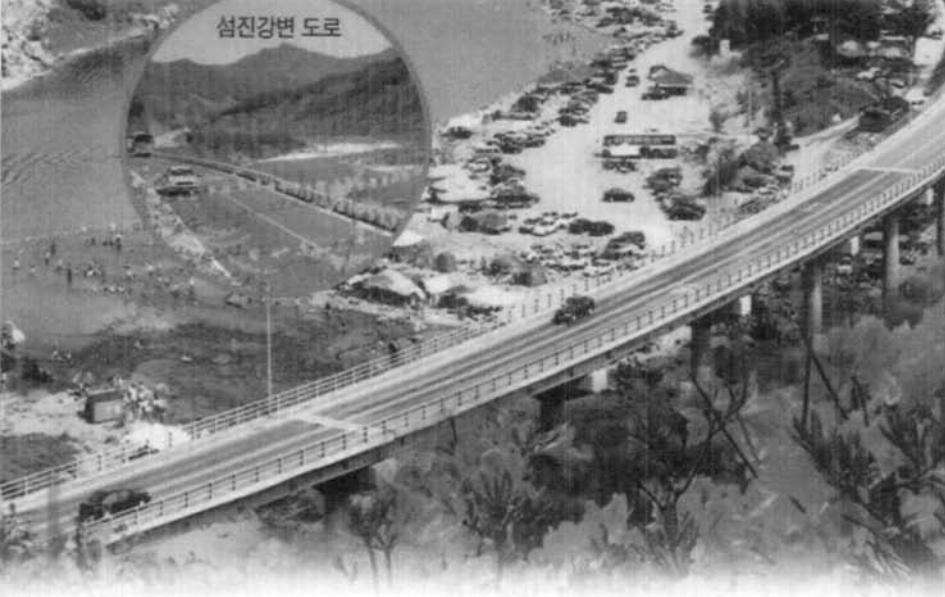




관음사 (觀音寺)

오산면 선세리 | 문화재 자료 제24호

백제 분서왕(300년) 성덕보살이 창건한 남한 제일의 백제 고찰이다. 별교에서 금동 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와 봉안한 내륙 유일의 관음성지이기도 하다. 고대소설 심청전 원류로 추정되는 원흥장 설화가 전해진다.



오곡면 압록리

압록유원지 (鴨綠遊園地)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이곳은 대나무와 깨끗한 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곳으로 압록의 별미인 참계탕, 은어구이, 매운탕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여름철 가족단위 캠핑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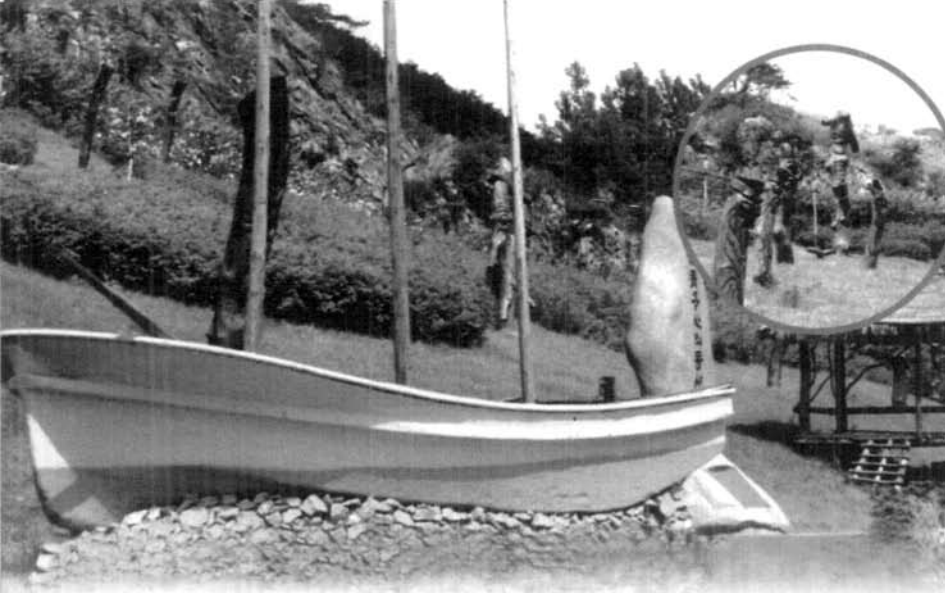
설산 괘일봉 (雪山 掛日峰)

오산면 선세리 | 문화재 자료 제24호

해발 522.6m의 설산은 산 정상의 하얀 규암이 멀리서 바라보면 눈처럼 하얗게 보여 설산이라 불리어 지고 괘일봉에 걸린 눈부신 황혼은 곡성8경에 속한다. 특히, 기암괴석이 웅장한 이곳은 등산 코스로 잘 알려져 있어 사시사철 소풍객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산 수도암(雪山修道庵)

높이 4.17m 인 석탑은 옛 부재에다 일부 탑재를 만들어 복원된 것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균형감을 살려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며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심청공원 (沈淸公園)

관음사 사적기를 윤색한 고대소설의 백미인 심청전의 배역인물 장승 23기와 심청효행기념비 그리고 관음사 연기설화에 나오는 흰불두화, 흰만리향화등 삼백화가 조성되어 있다.

심청마을 沈淸村 오곡면 송정리

곡성군이 역사상 실존인물 심청의 고향으로 떠오르면서 가장 심청마을다운 쇠쟁이마을 옛터에 심청과 효를 테마로 하는 전통마을이 들어서게 된다.



청계동 (淸溪洞) 곡성읍 신기리

곡성읍과 입면 사이로 동악산이 큰 용처럼 달려오다 강줄기를 만나 멈춘 곳이다. 또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남원시의 한봉과 순자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모으고 만나는 듯한 도계(道界)지역으로써, 옛부터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마치 심청의 진경(眞境)을 옮겨놓은 듯 하다는 명승지이다. 임란시 의병장이었던 청계 양대박장군이 의병을 양성하고 활동했던 이 계곡은 4km쯤 되는 긴 계곡으로 주변에 크고 작은 산골짜기가 수없이 많고 골짜기를 따라 군데군데 작은 폭포들이 있으며, 수석이 아름답고 송림이 우거져서 여름철 피서객이 자주 찾는 명소이다.

곡성의 답사코스



순환형 관광코스
불교유적지



옥과면 옥과리 **성륜사 C**

46km (60분) 코스



태안사 B 죽곡면 원당리
문화재자료 제23호

29km (40분) 코스



도림사 A 곡성읍 월봉리
문화재자료 제22호



오산면 선세리
문화재자료 제24호

관음사 E

F 심청공원

오산면 선세리

수도암 D 옥곡면 설육리

17km (25분)

8km (13분)



순환형 관광코스
불교유적지



옥괴면 옥괴리 **성륜사 C**

4.6km (60분) 도보



도림사 A

근삼읍 월봉리
문화재자료 제22호

2.9km (40분) 도보

태안사 B

죽곡면 원달리
문화재자료 제23호





오산면 선세리
문화재자료 제24호

관음사 E

F 심청공원

오산면 선세리

수도암 D 옥과면 설옥리

17km (25분) **고속**

8km (13분) **고속**



순환형 관광코스
불교유적지



옥괴면 옥괴리 **성륜사 C**

48km (60분) [3강]



태안사 B

주피면 월당리
민화재지료 제23호

29km (40분) [3강]

도림사 A

공성읍 월봉리
민화재지료 제22호





오산면 선세리
문화재지표 제24호

관음사 E

F 심청공원

오산면 선세리

수도암 D 옥과면 설죽리

17km (25분) E

8km (13분) E



순환형 관광코스
호국역사지



곡성읍 신기리



청계 양대박장군(청계동) E

8km (15분)

8km (10분) E

입면 재월리
중요민속자료 제156호

군지촌정사 D 함허정

입면 재월리
유형문화재 제160호

6km (10분) E



C 의마총

입면 송전리

2km (3분) E



B 벌파 유령보장군 정렬각

송과면 함강리
문화재자료 제25호

7km (10분) E

A 야생
민중
터미

입면 상오리
유형문화재 제51호





석곡면 방송리 **마천목장군 사당 ①**



목사동면 구룡리
지방기념물 제86호

H 용산재

G 경찰총흔담

죽곡면 원달리
태안시 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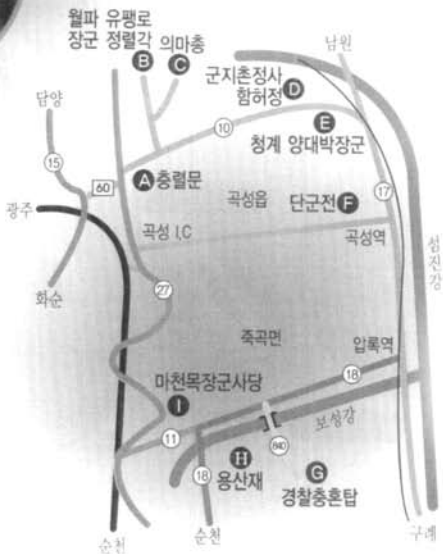
F 단군전

곡성읍 읍내리



F 단군전

곡성읍 읍내리



순환형 관광코스
곡성지역



곡성중의탑 C 곡성읍 묘촌리

1.8km (4분) 코스

3.4km (5분) 코스



도림사 A 곡성읍 월봉리
문화재자료 제22호

4.7km (8분) 코스

곡성향교 B 곡성읍 교촌리
문화재자료 제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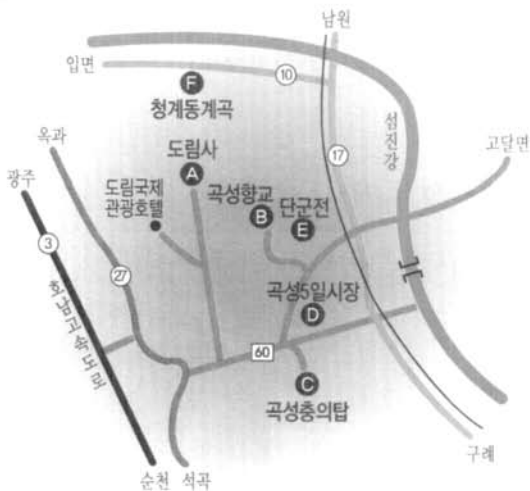
F 청계동계곡 곡성읍 신기리



E 단군전 곡성읍 읍내리

1.1km (3분) 도보

D 곡성5일시장 곡성읍 읍내리



순환형 관광코스
오곡지역



오곡면 덕산리
문화재자료 제120호

덕산사 C

4.3km (8분) 도보

수성당 B

오곡면 오지리
문화재자료 제129호

0.3km (2분) 도보

도동묘 A

오곡면 오지리
문화재자료 제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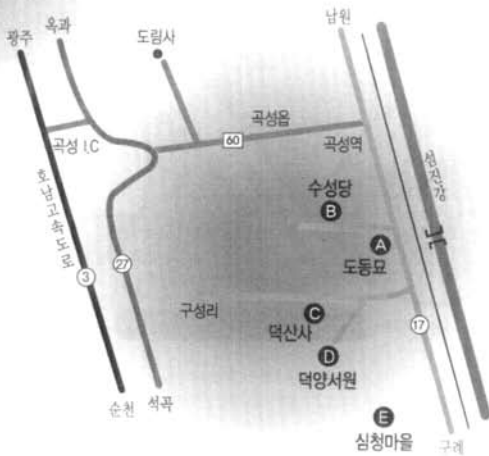




E 심청마을 오곡면 송정리

10km (15분)车程

D 덕양서원 오곡면 덕산리
지방기념물 제50호



순환형 관광코스
압록 지역



10km (15분) [30]

오곡면 압록리일대

압록유원지 B

C 경찰승전탑 오곡면 압록리



5.2km (8분) [30]

고달면 가정리

A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자전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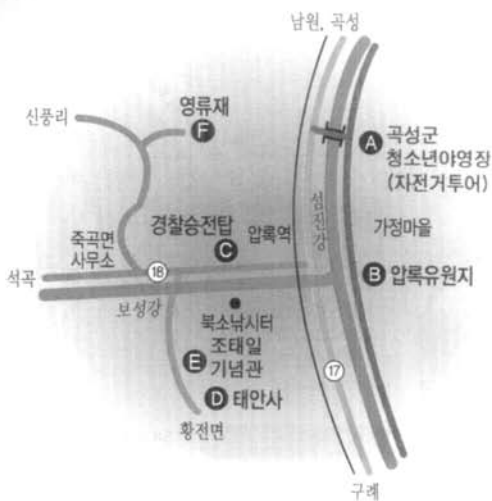




F 영류재 죽곡면 봉청리 문화재자료 제167호

거리 **조태일 기념관 E** 12km (18분) E

D 태안사 죽곡면 월달리 문화재자료 제23호



순환형 관광코스
석곡 지역



석곡면 석곡리

석곡5일시장(4.9) D



0.7km (2분) ESW

석조여래입상 C

석곡면 석곡리
문화재지공 제28호

2km (4분) ESW

돌실나이 B

석곡면 죽산리
중요 무형문화재 제32호



9.1km (15분) ESW



A 마천목장군 사당

석곡면 빙송리 빙주마을



G 계마석 죽곡면 상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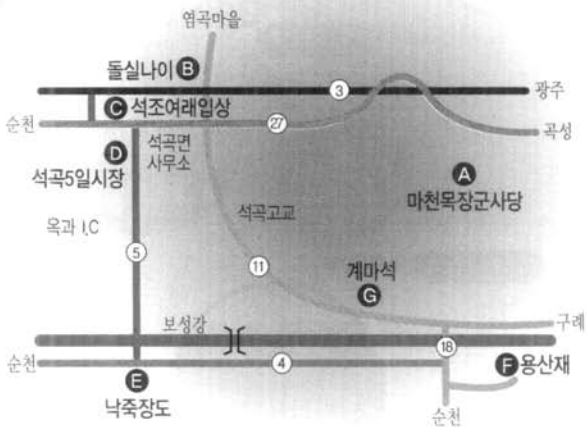
4km (6분) 103

F 응산재 목사동면 구룡리
지방기념물 제56호

7.4km (10분) 104

E 낙죽장도 목사동면 공북리
중요 무형문화재 제60호

0.8km (2분) 105



순환형 관광코스
옥과지역



옥과면 옥과리

옥산사 B

B 목조신상

옥과면 옥과리
민속자료 제2호



수도암 A

옥과면 설옥리



옥과면 옥과리
유형문화재 제109호

옥과향교 C

1km (3분) 도보

0.5km (2분) 도보



8km (15분) 15

F 영귀서원

검면 현정리



E 옥과미술관

옥과면 옥과리

3km (5분) 15

D 옥과5일시장(4.9)

옥과면 옥과리



이야기가 있는 곡성

인쇄일 2005년 12월

발행일 2005년 12월

발행인 양병하

기획 조준원

교열 배숙경

제작 워드디자인